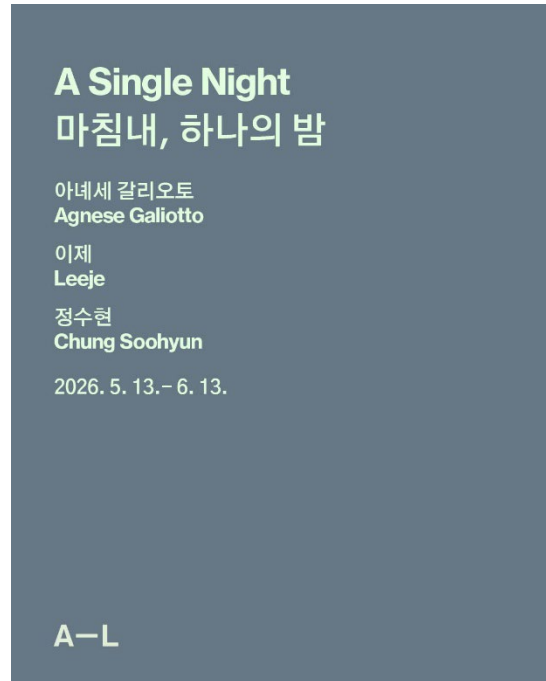


[Press Release] 총 8쪽

《마침내, 하나의 밤 (A Single Night)》



- 2026년 5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4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아녜세 갈리오토, 이제, 정수현의 단체전
- 에칭 판화, 회화, 영상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 총 16점의 작업이 에이라운지 1층과 2층 공간에 나누어 전시
- 《마침내, 하나의 밤》은 인간과 동물, 사물이 각자의 감각과 시간, 꿈과 기억을 지닌 존재로 함께 머무는 하나의 장소를 제안한다. 전시는 세계를 설명하거나 타자를 명명하기보다, 불분명하고 불완전한 만남 속에서 감각과 상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하나의 밤”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잠시 마주치고 감응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 전시 개요

전시 제목: 《마침내, 하나의 밤 (A Single Night)》

참여 작가: 아녜세 갈리오토(Agnese Galiotto), 이제, 정수현

일 정: 2026년 5월 13일(수) - 6월 13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Contemporary)

(문의: 02-395-8135)

개관 시간: 화-토, 11 a.m. - 6 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이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최하림 디렉터 (summerforest@a-lounge.kr, 02-395-8135)

○전시 내용

에이라운지는 2026년 5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안민혜 기획의 전시 《마침내, 하나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아녜세 갈리오토(Agnese Galiotto), 이제, 정수현 세 작가의 회화, 판화, 영상 작업을 통해 인간과 동물, 사물의 삶과 상상, 꿈과 기억을 같은 층위에서 바라본다. 전시는 이 서로 다른 존재들의 감각이 교차하고 머무는 하나의 장소로 펼쳐진다.

이탈리아 출신 작가 아녜세 갈리오토는 전통 프레스코 기법을 바탕으로 벽화 작업을 이어온 작가이다. 그는 2022년에 가파도 레지던시에 머물며,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 식물이 뒤덮인 채 남겨진 한 폐가에 프레스코 벽화 <Green Cave>를 제작했다. 작가는 나무가 거의 없는 섬에서 숲처럼 변해버린 이 집을 폼페이 고대 주거 공간에 겹쳐 보며, 그 안을 산 자와 죽은 자, 인간과 동물, 식물과 바다 이야기가 서로 얽히는 상상의 동굴로 변모시켰다. 이 작업을 통해 한국에 처음 소개된 갈리오토는 《마침내, 하나의 밤》에서 첫 서울 전시를 열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에칭 판화 작업을 선보인다.

갈리오토는 벽화 제작을 위한 밑그림을 대형 작업으로 제작하여 에이라운지 2층 중앙 공간의 바닥 전체에 설치한다. 관객은 이 이미지 위를 직접 걸어 다닐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작품이 닳고 흔적을 입는 시간 또한 작업의 일부가 된다. 전시가 끝난 뒤 작가는 이 작업을 다시 이탈리아로 옮겨가 새로운 벽화로 이어갈 예정이다.

바닥에 펼쳐진 이미지 속에는 풀숲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개 한 마리, 그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새와 고양이가 등장한다. 그리고 함께 전시되는 세 점의 에칭 판화에는 마치 개의 꿈속 장면처럼 보이는 기묘한 이미지들이 새겨져 있다. 1층에는 작은 에칭 한 점이 별도로 설치된다. 그 안에는 작은 쥐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이 존재는 마치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방문자처럼, 혹은 지하라는 또 다른 공간을 열어내는 안내자처럼 전시장 안에 숨어든다.

정수현은 1층에 두 점, 2층에 네 점의 회화를 선보이며,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영상 작업을 발표한다. 작가는 유화와 아크릴화를 사용하지만, 그가 만들어내는 장면은 르네상스 이전 템페라 회화를 연상시키는 색감과 얇고 매트한 표면을 지닌다. 동시에 그 이미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사물과 건축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 기법과 이미지 사이의 묘한 이질감을 드러낸다.

인간이 사라진 듯한 고요한 사물과 건축적 공간은 오래된 시간의 층위를 품은 듯한 회화적 표현과 함께, 사물과 장소가 지닌 비인간적 시간, 혹은 인간의 기억을 넘어서는 감각을 암시한다. 이번 전시에 포함된 영상 작업에서는 핀볼(pinball)의 움직임이 매우 무겁고 거대한 감각으로 표현된다. 인간의 시선으로 인식되는 사물의 운동과, 사물의 감각에서 펼쳐지는 세계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작업은, 1층과 2층에 놓인 여섯 점의 회화와 교차하며 사물의 세계와 그 내부의 시간을 더욱 깊이 있게 드러낸다.

이제 작가는 하나의 양식이나 고정된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고, ‘화가’로서 자신만의 회화적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이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물감의 물성을 한층 집요하게 밀어붙인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화면 속에는 세계와

A-L

관계 맺고 있는 인간들의 군상이 등장하지만, 그 장면은 개별 요소들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인간과 배경, 사건은 서로 뒤섞이고 겹쳐지며, 하나의 혼합된 덩어리처럼 나타난다.

따라서 관객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특정한 형상이 아니라, 응축된 물감의 덩어리와 선, 굵히고 쌓인 표면의 흔적이다. 그러나 그 안을 오래 들여다보면 여러 겹으로 덧입혀지고 다시 지워진 층위 사이에서 희미한 실루엣과 움직임이 떠오른다. 이제의 회화는 혼란 속에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붙잡고, 다시 놓치는 방식을 화면 위에 드러낸다. 그것은 그림 속에서 벌어진 장면인 동시에, 우리 앞에 하나의 물질적 세계로 출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과 함께 전시장 안팎에 식물이 놓인다. 이 식물들은 동물, 인간, 사물이 함께 감각하고 상상하는 공간에 초대된 또 다른 손님처럼 등장한다. 이들은 공간을 감싸 안으며 전시장 안과 밖을 연결하고, 공간 안의 존재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감각적 관계를 발생시킨다.

《마침내, 하나의 밤》은 세계를 설명하거나 타자를 명명하는 전시가 아니다. 전시는 조용히 바라보고, 듣고, 머무는 태도를 통해 우리가 타자와 어떻게 마주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만남은 선명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며, 때로는 찰나에 가깝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한 순간 안에서 감각과 상상은 작동하기 시작한다. 전시는 그 작고 어두운 시간, 마침내 하나의 밤처럼 도래하는 감응의 순간을 향해 나아간다.

○ 참여 작가 주요 약력

아네세 갈리오토 Agnese Galiotto, b.1996

아네세 갈리오토는 고전적 프레스코 기법과 과거의 회화 언어를 현재의 감각으로 재구성하며, 자연과 존재가 공유하는 시간의 밀도를 탐구한다. 브레라 국립미술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프랑크푸르트 슈테델슐레에서 수학했으며, 고전적 회화 언어를 현재의 장소와 감각 안에서 다시 호출하는 작업을 선보여왔다. 그는 벽이라는 오래된 회화의 장소를 단순한 지지체가 아니라, 시간과 흔적, 신체와 환경이 함께 머무는 표면으로 다룬다.

이제 Leeje, b.1979

이제는 도시적 일상과 주변의 인물들, 사라져가는 풍경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회화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왔다. 재개발 지역, 탈북 여성, 이주노동자의 공간 등 사회적 맥락을 지닌 장면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담아내며, 기억과 정서, 연대와 우정을 담을 수 있는 회화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국민대학교 회화과 학사 및 석사를 졸업했으며, 에이라운지, 갤러리조선, OCI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그는 특정한 주제나 양식으로 자신의 회화를 고정하지 않으며, 매번 화면 안에서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다시 조율해왔다. 그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의 명확한 설명이 아니라, 그 대상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색, 물감, 붓질, 거리감, 그리고 화면의 밀도이며, 그것들이 작가와 맺고 있는 관계이다.

정수현 Chung Soohyun, b.2001

정수현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설계 프로그램을 다루던 경험에서 출발해 구조와 해체, 평면과 입체, 실재와 환영의 관계를 회화 안에서 탐구한다. 그는 회화를 단순한 이미지의 재현이 아니라, 사물과 공간, 시간과 감각이 서로 어긋나며 구성되는 장으로 다룬다.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영상 작업에서는 사물의 감각에서 펼쳐지는 세계를 회화와 연결하며, 사물의 기억, 비인간적 시간, 감각의 불확실성을 더욱 입체적으로 확장한다.

○ 대표 작품



아네세 갈리오토 Agnese Galiotto

Wake up the old dog, he's free

2026

Acrylic painting on cotton and acrylic cloth

740.0 x 380.0cm



아네세 갈리오토 Agnese Galiotto

They ate our clothes

2025

Etching on paper

Handmade print, ed. 3/10

125.0 x 150.0cm



이제 Leeje

장마

2026

Oil on canvas

111.2 x 145.5cm



이제 Leeje

휴먼

2026

Oil on canvas

65.1 x 8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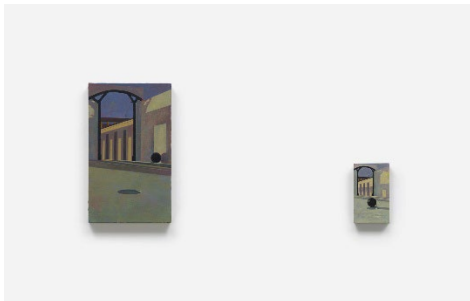
정수현 Chung Soohyun

187:37:15 좌표의 문 02

2026

Acrylic and copper verdigris on canvas

115.0 x 115.0cm



정수현 Chung Soohyun

239:74:20 연구 1, 2

2026

Acrylic on canvas

48.5 x 29.0cm, 21.0 x 12.5cm

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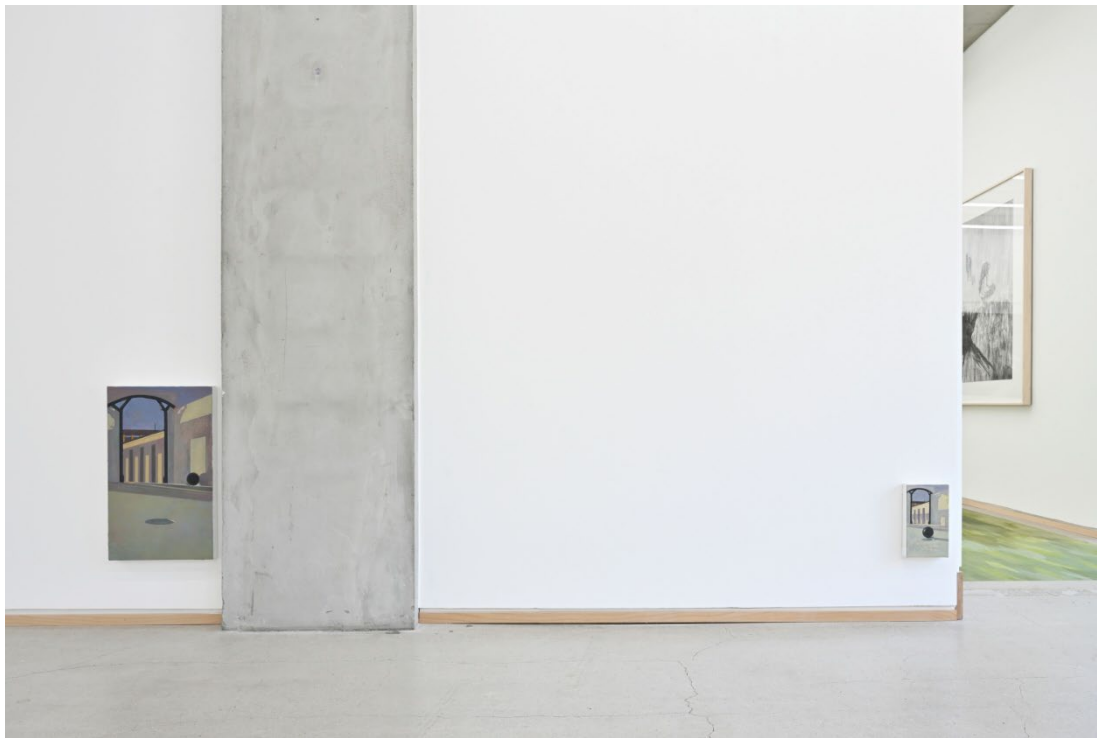
○ 전시 전경



A-L



A-L



A-L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Contemporary, Seoul